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GREEN SUN

가제 : 초록 태양이 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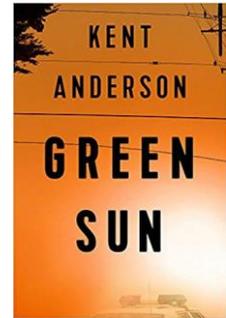
저자 : Kent Anderson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8년 2월 2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무서울 정도로 진실되고 감동적인 한 경찰의 삶을 그렸다." - 「데일리 메일」

* "앤더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끔찍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다.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읽게 된다." - 「NPR」

헨슨은 특이한 경력들을 가진 남자였다. 오리건 주의 한 빈민가에서 경찰로 근무한 바 있었고, 베트남전 당시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다. 또한 그는 전공인 영문학을 살려 학생들을 상대로 영문학 강의도 한 바 있었다. 특히 그는 베트남과 오리건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이 살며 목격할 수 있을 법한 최악의 사건들은 이미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그의 새로운 정착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과연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과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1983년, 헨슨에게 죽음이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는 여전히 베트남 전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가끔은 환영을 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이미 다른 전우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죽은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슬한 그 죽음의 이미지들과 환영 속에서 그는 가까운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었다. 그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는 학교 생활이 자신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경찰서의 법집행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일이 꼬이는 바람에 이미 4년간이나 경찰 업무를 수행했던 그의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때문에 그는 서른 여덟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갓 스무 살이 넘은 청년들로 가득한 경찰 대학에서 5 개월간 훈련 코스를 이수해야만 경찰관이 될 수 있었다.

나이 탓인지 오전이 지나면 수업에 집중하는 것조차 헨슨에겐 꽤 버거운 일이었다. 특히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가버 중위의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 철학과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더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버 중위 역시, 경찰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데다 다른 생도들과 달리 자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는 핸슨을 어떻게든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한 꼬투리를 잡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핸슨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은 잭슨 경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체력 훈련 담당이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엔 핸슨은 결코 경찰관이 될만한 역량은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시 그를 고의적으로 쫓아내려고 했다. 그는 생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핸슨을 불러 훈련 시범을 보인답시고 대놓고 망신을 주기도 했고, 핸슨의 체력적인 역량에 대해 비판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핸슨은 잭슨 경사의 비상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는 절대 표정 한 번 바꾸지 않았다. 핸슨이 이렇게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정의롭게 대처하기 위해 애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경찰이란 총을 가졌다는 것만 다를 뿐 사회복지사와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핸슨은 여전히 외톨이 신세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던 대로 경찰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살면서 시궁창 같은 현실의 모습을 이미 볼만큼 보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추측과 달리 그가 학교를 벗어나 진짜 삶을 살게 될 오uckland 지역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교외인 이곳은 폭력과 마약 사건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거리에는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득실거렸고, 마약 중독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비극적인 청년들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 대부분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주어진 체포 할당량만 채우기 급급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군인 신분으로 일했던 시절과 경찰이 된 지금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다. 군인이었던 시절에는 몇 달 후 금방 군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지만, 경찰 일은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생활을 감내하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위기 (WeeGee)'라는 흑인 소년과 한 사원에서 만난 검은 토끼의 환영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지역의 소시민들과 흑인 공동체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는 곧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곳을 마약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일명 '오uckland의 마약 왕', 펠릭스 맥스웰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는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다른 경찰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강요와 압박 대신 그를 설득하고 친해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남다른 그의 수사 방식과 점점 높아지는 그에 대한 지역 사회의 호감도는 또 다시 그를 동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핸슨은 죽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까? 그가 사랑하는 이곳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전통적인 영웅의 이미지와는 또다른 한 독특한 영웅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켄트 앤더슨 (Kent Anderson)은 미국 작가이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전직 경찰, 전직 교수이다. 전작으로는 Sympathy for the Devil, Night Dogs, Liquor, Guns & Ammo가 있다.

제목 : A SINGLE THREAD

가제 : 실날 같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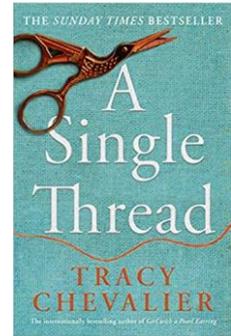
저자 : Tracy Chevalier

출판사: The Borough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의 작가의 최신작

*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평범한 삶과 쉽게 잊혀지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는 그녀만의 능력을 이 소설을 통해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 「선데이 타임즈」

1932년 영국, 16년 전 바이올렛 스피드웰은 비극적인 전쟁으로 사랑하는 오빠와 약혼자를 동시에 잃고 말았다. 바이올렛은 자신의 슬픔을 돌볼 여유도 없이 절망과 한탄에 빠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집과 과거를 벗어나 윈체스터로 향한다. 앞으로 그녀의 삶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전쟁 후 오빠를 잃고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자, 바이올렛의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미혼이자 여자인 바이올렛이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스피드웰 부인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다. 스피드웰 부인은 전쟁으로 큰 아들 조지를 잃기 전부터 이미 늘 아들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렛이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늘 잔소리를 퍼붓던 사람이었다. 게다가 작은 아들 톰마저 결혼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곁에서 도망치자 모든 원망과 심술을 바이올렛에게 쏟아 부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바이올렛은 어렵게 돈을 모아 톰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뒤 자신만의 삶을 꾸려보기 위해 윈체스터로 왔다.

윈체스터 마을은 영국에서 가장 큰 성당 중 하나가 있는 곳이었다. 1932년 5월 19일, 카톨릭 수호 성인 중 한 명을 기리는 던스틴 데이인 이날 바이올렛은 이사 후 처음으로 이 성당에 찾아왔다. 성당에는 목요일 치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신도 중 대부분은 거의 여성들이었다. 이곳에 모인 여자들은 일명 ‘잉여 여성들’이었다. 윈체스터 마을 역시 전쟁 후 남자들이 거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바이올렛은 잠시 생각에 잠겨 견고하게 지어진 성당 위를 한 번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건물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굳게 존재하고 있는데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어찌 그리 허망하게 다 죽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이올렛에게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신이란 전쟁에서 사라져간 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혼할 기회도 없었고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유일한 밥줄인 보험회사 속기사 일을 하며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는 이 현실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긴 예배시간으로 지루해진 바이올렛이 몸을 비틀자 뒤에서 한 여인이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를 툭 찔렀다. 바이올렛이 뒤로 돌아보자 그 여인은 바이올렛의 얼굴이 낯설다며 혹시 '자수 놓는 여인들' 소속인지 물었다. 바이올렛은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는 바가 없었고 자신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바이올렛의 왼손에 결혼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슬쩍 보더니, 이 예배는 오직 '자수 놓는 여인들'만을 위한 예배이니 다음 예배에 참석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반항심이 생긴 바이올렛은 성가대 의자에 앉아있는 비긴스 부인을 가리키며 자신은 분명 저 부인이 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나갈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올렛의 단호함 때문인지, 비긴스 부인의 권위 때문인지 그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다시 성당 복도로 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 성당의 주임 사제는 '자수를 놓는 여인들'이 앞으로 맡게 될 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모임은 작년에 루이스 페셀이라는 여성이 설립한 것으로 모임의 명칭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자수 길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아무래도 이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당 곳곳에 보이는 장식품들과 무릎 방석들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난 후 바이올렛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굳이 사무실까지 뛰어갈 필요는 전혀 없었다. 꽤 규모가 작은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빈 자리를 눈치채지는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한 켠 부엌에서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넘은 그녀의 동료들인 올리브와 모린이 정답게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올리브와 모린은 바이올렛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지만 바이올렛은 그들에게 왠지 모를 벽을 느끼곤 했다. 그들은 바이올렛과 달리 안락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조신한 숙녀들이었고 댄스홀로, 식당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 다니는 이들이기도 했다. 때문에 바이올렛은 도저히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바이올렛은 내심 자신만의 친한 친구와 따뜻한 집을 가질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과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바이올렛이 어렵게 이곳까지 이사하면서 바랐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바이올렛은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 종종 윈체스터 성당으로 찾아갔고, 성당 안에 놓인 자수 쿠션들을 보던 중 그 쿠션들에 이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감동을 받았다. 자신도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이올렛은 자수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유대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그녀는 계속 방향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올렛은 진정한 집을 갖게 될까? 한 여성이 독립된 삶과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트레이시 슈발리에 (Tracy Chevalier)는 『At the Edge of the Orchard』, 『Remarkable Creatures』와 전세계에서 오백만 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 『Girl with a Pearl Earring』 등을 포함한 10권의 소설을 쓴 작가이다.

제목 : THE LOST DIARY OF M.

가제 : M의 사라진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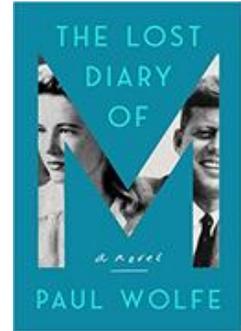
저자 : Paul Wolfe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대통령 재임 시절, 존 F. 케네디가 열렬히 사랑에 빠져들었다는 소문 속 주인공인 매리 마이어의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소설**

펜실베이니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매리는 십대 시절 한 기숙학교에서 케네디를 처음으로 만났다. 몇 년 후, 그녀는 CIA 요원인 코드 마이어와 결혼해 조지타운에 정착하게 되고 남편을 따라 정치 거물들이 모이는 파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케네디를 다시 만나 열렬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둘러싼 위험한 사랑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저 소문으로만 남아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둘에 대한 이야기를 매리가 쓴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소설이다.

케네디와 가까워질 수록 점점 커다란 위험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매리는 친구 앤 트루이트가 가장 먼저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기장을 자신의 그림 작업 스튜디오에 있는 나무 상자에 숨겨두었다. 매리는 만약 이 일기장이 발견된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신세일 것이며, 그 죽음은 CIA의 국장이자 자신의 두 아들의 대부인 제임스 지저스가 꾸민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매리는 또한 일기장에 그가 자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전 남편 코드 마이어와 제임스 지저스, CIA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미국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과 케네디가 한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케네디 대통령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의 연인이며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케네디가 재클린과 헤어질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제임스 지저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케네디와의 사랑에 폭 빠져있는 것만 같았다.

1964년 1월 4일, 이제 케네디는 세상을 떠나고, 한 낯선 그림자가 매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수상한 기운을 느낀 매리는 수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화기에서는 외계에서 보낸 신호 같은 이상한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집 안의 물건들의 배치가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리에게 일종의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듯한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핵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매리와 케네디가 합심하여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사력을 다해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아마도 매리를 노리고 있는 듯했다.

케네디와 매리가 서로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게 된 건 1936년 겨울에 열렸던 한 학교 댄스파티에서였다. 당시 열여섯이었던 매리는 동급생 빌과 파티에 참석했었고 이미 졸업생이었던 열아홉 살의 케네디는 무슨 연유였는지 파트너도 없이 그곳에 와 있었다. 그 파티는 엄청나게 성대한 파티였고 매리말고도 훨씬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성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계속해서 매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매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케네디라는 남자에게 여성과의 만남은 그저 일종의 스포츠와 같은 것일 거라고 결론짓고 그를 피하려고 했다. 훗날 매리는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케네디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그의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그 순간들을 후회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때 케네디 스스로가 자신이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만남 이후 케네디는 그 후로도 줄곧 매리를 그리워했고 그건 재클린과의 결혼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마치 운명처럼 조지타운에서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두 부부는 바로 옆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케네디는 보도에 서서 작은 자갈들을 매리의 방 창문을 향해 던졌다. 그 소리에 놀란 매리는 커튼을 열어 자신에게 어서 와달라고 속삭이고 있는 케네디를 발견했다. 당시 남편 코드는 바로 옆방에 있었고 재클린은 설마 미 상원의원이 자갈이나 던지며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매리는 그의 무모한 태도에 고개를 저으며 그를 그냥 무시해버렸다. 둘 사이에 놓인 장벽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1961년 5월, 매리는 코드와 이혼한지 이미 3년이나 지난 상태였다. 그녀는 CIA 요원의 아내로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파티에서 케네디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 그를 만나는 것일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예술 활동에 투자하고 있었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고민했다. 그리고 생일 파티 당일 매리는 마흔 넷 젊은 나이에 일찍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자신만만해 보이는 케네디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 옛날 파티에서 매리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지었던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매리는 당장이라도 그를 껴안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케네디가 그녀를 만나길 원한다는 백악관의 연락을 받았다. 둘은 이 재회에서만큼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케네디는 매리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1963년 케네디는 암살로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매리 역시 뒤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야사와 허구를 섞은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폴 울프 (Paul Wolfe)는 건축가, 작곡가이며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피라이터이다. 이 책은 그의 첫 소설이다.

제목 : EXPECTATION

가제 : 어떤 기대

저자 : Anna Hope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9년 7월 1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굉장히 지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 「가디언」

* "우정, 페미니즘 및 좌절 된 야망에 훌륭한 탐구"- 「판도라 사익스」

한나, 케이트, 리사. 이 세 젊은 여성들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 90년대 중반 런던, 대학에서 페미니즘 수업에서 한나와 리사가 먼저 친구가 된 후 케이트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그들은 삶과 사랑, 정치와 예술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현실은 대학시절 자신들이 꿈꿔왔던 삶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불안정한 미래와 흔들리고 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들은 여전히 방향 중이었다.

반쯤 잠에 취해 있던 케이트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산산히 부서진 거리 위에서 아기를 안고 이리저리 헤매는 꿈이었다. 악몽이라는 것을 깨달기도 전 갑자기 누군가가 케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눈을 뜬 케이트는 그 애타는 목소리가 바로 자신의 어린 아들 톰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케이트는 남편 샘의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런던에서 케임브리지로 이사 왔다. 아직 어린 아기인 톰은 밤마다 울어대기 일쑤였고 아무리 케이트가 톰을 달래려고 애를 쓰고 사정을 해도 점점 높아지는 울음 소리는 멈추질 않았다. 결국 너무 지쳐버린 케이트는 다시 샘이 자고 있는 손님방으로 향했다. 복도에는 아직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치해 둔 이삿짐이 가득 쌓여 있었고 샘은 손님방 침대에 누워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순간, 케이트는 이 엉망진창인 집으로부터, 무심한 남편으로부터,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는 무서운 작은 동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아무 옷이나 챙겨 입고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시 침실로 돌아와 톰을 재운 후 완전히 잠에서 깨버렸다. 아침 일곱 시가 되자 간밤 술에 취해 들어와 바로 곱아떨어졌던 샘은 이런 그녀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오히려 잠을 못 잤다고 투정하며 손님방에서 나왔다. 샘과 케이트는 같이 잠을 자지 않은지 오래였고 둘의 침실은 이제 아기와 케이트만의 방이 된 것만 같았다.

반면 한나는 이런 케이트를 눈물 나도록 부러워하고 있었다. 벌써 수 차례 한나와 그의 남편 네이슨은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도하고 있는 체외수정도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네이슨과 달리 한나는 임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지만 변함 없이 한 달에 한번 생리는

이어졌다. 하지만 한나는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부모들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아기의 통통한 팔이나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면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나는 이십 대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케이트만큼 행복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케이트는 꼬박꼬박 대출을 갚을 필요 없이 남편의 부모님이 물려준 집에 살고 있었고 임신하기에 충분한 몸과 건강한 아들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트와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건 리사도 마찬가지였다. 리사는 여전히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오디션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케이트나 한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언제나 활기가 넘쳐 보였다. 게다가 리사는 이제는 두 친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 같은 페미니즘적 신념또한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사의 현실은 한나나 케이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리사는 그 둘과 달리 싱글 여성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에게 삶이란 불안의 연속 그 자체였다. 오디션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서 겉모습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에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화가이자, 선배 페미니스트인 엄마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얼마 후 리사는 안톤 체호프의 한 연극에 캐스팅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엄마 사라의 집으로 갔다. 저녁 식사 도중 사라는 리사에게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한나와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사라는 한나가 꽤 성공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커리어까지 포기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신들과 같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과거에, 후배 페미니스트들과 딸들의 세대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어쩐지 헛수고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사라는 자신의 딸 개인 한 명뿐만 아니라 딸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리사는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각종 페미니즘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엄마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나의 남편인 네이슨을 떠올렸다. 사실 리사는 열두 살 무렵 친구의 남편이기 전에 동네 또래 친구로 네이슨과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는 리사가 시무룩한 얼굴로 홀로 어딘가에 앉아있을 때면 언제나 다가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빌려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가 대학을 간 후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렸고 훗날 엄마 사라가 네이슨을 갑자기 어디선가 데려와 한나에게 소개시켜주었던 그 어느 날 밤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리사는 외롭고 헛헛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얼마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네이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네이슨은 어서 빨리 리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한편 임신에 성공한 한나는 또 다시 유산을 경험하게 되고 한나와 네이슨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져간다. 세 친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 동시대 여성들의 고민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 소개>

애나 호프 (Anna Hope)는 베스트셀러 Wake and The Ballroom의 작가이다.

NON-FICTION

제목 : THE EXTREMELY BUSY WOMAN'S GUIDE TO SELF-CARE

가제 : 엄청나게 바쁜 여자들을 위한 자기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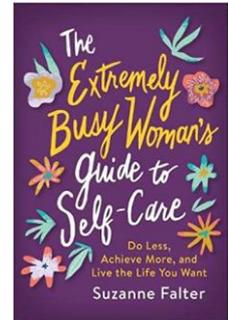
저자 : Suzanne Falter

출판사: Sourcebooks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전해주는 책, 모든 독자들을 위한 현명하고 다정한 조언들."-「퍼블리셔 위클리」**

현대 여성들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아마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이에 더해 완벽한 직장인의 역할까지 세상은 그야말로 현대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여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뒷전에 두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관리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쩐지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더 희생하며 살고 있는 여자들일수록 정작 자신에게는 특별한 자기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휴식과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여성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결코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며 이들에게도 남들 다하는 휴식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기 관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수잔 팰터 역시 오늘날 평범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고단함 속에서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적인 일들과 겪어야 야했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일 중독자의 삶에서 벗어나 인생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도전에 직면했다.

착한 여자 증후군에 빠진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듯 저자 또한 수 십 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묵살하며 살아왔고 무려 33 년 동안이나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와 지향을 억압하는 대신 그녀가 선택한 길은 바로 워커홀릭의 삶이었다. 당시 저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살면서 단 한번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더 완벽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더 열심히 일하고 오늘의 나 자신을 포기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겨우 스물 두 살밖에 안 된 딸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첿바퀴 같은 이런 고된 삶 또한 그 순간 멈춰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저자는 원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과 가정, 현실 도피처로 삼았던 일을 떠나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순한 자기 관리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바쁘고 지친 현실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여성들을 위한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자기관리법 안내서이다.

<목차>

- 제 1 부 : 자기 관리 마인드셋
- 제 2 부 : 자기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들
- 제 3 부 : 자기 관리를 나의 삶으로 만들기

<저자 소개>

수잔 팔터 (Suzanne Falter)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한 자기 관리법을 소개하고 있는 작가이자, 강연자, 블로거이다. 팔터의 저작들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및 유명지에서 여러번 소개 된 바 있으며 소설 작품으로는 『Surrendering to Joy』와 레인보우 어워드에서 최고의 트랜스젠더 작품상 수상작인 『Transformed』가 있다.

제목 : STRATEGIC RISK MANAGEMENT

가제 : 전략적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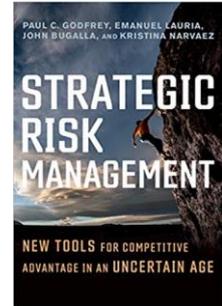
저자 : Paul C. Godfrey, Emanuel Lauria, John Bugalia, Kristina Narvaez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20년 1월 2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 "많은 리더들이 전략적 위험 관리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이 책이 그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상의 일화들과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정보, 유용한 도구들이 가득한 책이다."- 전략적 리스크 관리 디렉터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캐리 프란드슨

언젠가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은 “사람들은 누구나 볼에 주먹 한 방을 맞을 때까지 다들 저마다의 계획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권투 선수들을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경영진들을 위한 말일 수도 있다.

대개 경영 전문가들은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눈요기로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인 수행 목표들 역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는 가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며 경쟁사들 역시 예전과 달라진 빠른 경쟁 환경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전략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준비도 안하고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길거리 싸움꾼들처럼 무방비하게 즉흥적인 전략에 따라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공저자들인 네 명의 경영 전략 전문가들은 즉흥적인 전투 전략은 링에서는 잘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즈니스계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전략은 수년에 걸친 투자와 시행착오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효용성이 증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권투 선수들이 경기 자체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연구한 후 펀치의 방향을 예측하고 다가오는 신호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진들 역시 전략적인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회사가 핵심 경쟁 우위 혹은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 요소들을 알맞게 잘 관리만 한다면 타 경쟁사들이나 시장으로부터의 날라울 강력한 펀치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현명하게 대응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존의 기업 리스크 관리법 (Enterprise Risk Management)처럼 과거의 데이터와 계리 평가를 통한 계산과 예측에 의존해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는 방식 대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리스크 관리법인 전략적 리스크 관리 (Strategic Risk Management)를 그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한다. 전략적 리스크 관리는 과거의 행동들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전략이다. 각 저자들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지식, 원리 구조 및 도구 새로운 리스크 관리법의 틀을 설명하고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이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다. 기업 전략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네 명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업의 리스크 전략을 소개하는 경영서이다.

<목차>

머리말

서문: 어쩌다 이런 혼란이 시작 되었을까, 새로운 도구를 위한 필요성

제 1 장. 전략적 리스크 관리: 불확실한 세상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 한다는 것

제 2 장. 전략적 위험: 불확실성

제 3 장. 3만 피트에서의 SRM (Strategic Risk Management):가정, 정신적 지도 및 원칙들

제 4 장. 1만 피트에서의 SRM :조직 구조, 프로세스 및 역할

제 5 장. 지면에서의 SRM :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 6 장. 지면에서의 SRM :전략적 위험 분석 및 관리 도구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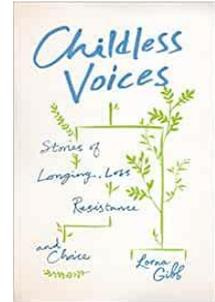
폴 C. 가드프리 (Paul C. Godfrey)는 버밍엄 영 대학교의 경영대학 비즈니스전략 전공 교수이다.

엠마누엘 로리아 (Emanuel Lauria)는 KB 리스크 솔루션의 최고 경영자이며 3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산업 분야에서 일한 바 있다.

존 부갈라 (John Bugalla)는 기업 및 전략적 위험 관리 컨설턴트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Exelon Corporation, Digital Realty Trust, Gildan 및 PQ Corporation과 같은 회사들의 고문을 맡은 바 있다.

크리스티나 나바레즈 (Kristina Narvaez)는 기업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연구 및 컨설팅 회사 인 ERM Strategies LLC의 소유자이다.

제목 : CHILDLESS VOICES
가제 :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삶
저자 : Lorna Gibb
출판사: Granta Books
발행일: 2019년 2월 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사회



* "로렌 깁 박사는 이 책에서 왜 부모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지 질문한다. 또한 박사는 자신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으로 자신은 한번도 가져 본적 없는 자녀와 모성에 대한 생각을 들려준다."- 「선데이 타임즈」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자 인류를 보존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부모라는 명칭은 한 개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가 된 개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고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좇는 것을 넘어서서 전세계 보편적인 이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며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나의 일부를 이 세상에 남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의 몇몇 곳에서는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하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 깁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농촌 지역들에서는 첫 아이를 가진 후에서야 여성들이 진정한 성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결혼 한지 얼마 안된 여성들은 시어머니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집안 살림을 도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지속적인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거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 종교적, 사회적, 혹은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순전히 자의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고갈되고 있는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꽤나 진보했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조차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은 때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마녀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마녀들의 캠프에 격리되는 일도 있다. 한편 발칸 반도에서는 섹스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 즉 '버니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또한 케냐의 키쿠유 족에는 남성과 가족을 이루어 아이를 낳는 것 대신 여성 파트너와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전세계에서 만난 일명 ‘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한다. 이 책은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그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가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글래스고부터 방글라데시까지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부모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르포이다.

<목차>

서문

제1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사랑에 관한 짧은 이야기

피를 흘린다는 것에 관한 짧은 이야기

제2부: 믿고 있는 사람들

사물에 이름을 짓는 것에 관한 짧은 이야기

제3부: 거부당한 사람들

이름에 이름을 짓는 것에 관한 짧은 이야기

중요한 것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

제4부: 입장을 선택한 사람들

관점에 관한 짧은 이야기

기다림에 관한 짧은 이야기

(총 8부로 구성)

<저자 소개>

로나 깃 (Lorna Gibb) 박사는 영국 미들섹스 대학의 선임 강사이며 소설 『A Ghost 's Story』의 저자이다.

제목 : HOW TO THINK STRATEGICALLY

가제 : 전략적 사고의 10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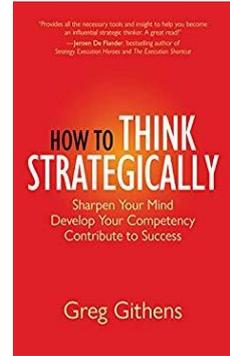
저자 : Greg Githens

출판사: Maven House

발행일: 2019년 1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을 둔함으로부터는 더욱 멀리, 선명함으로는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단순히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길 원하는 사람을 위한 필독서이다.”- The Adept Group의 CEO 폴 오코너**

이 책의 저자 그렉 기텐스는 유명 리더십 코치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기술이야말로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예리한 지각력으로 상황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입증된 사안으로만 논리를 전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빠른 예측들과 순응적 태도, 정통적 교리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유능한 전략적 사상가들은 삶과 비즈니스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어떤 현상을 마주하든지 아주 미약한 이상 신호까지 기민하게 잡아내며 조직이 마주한 핵심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해낸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언제나 안전하고 진부한 전략만을 고수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논리가 아닌 직관과 본능에 의존하고자 하며 단순한 문제, 명쾌한 해답만을 추구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런 안전제일주의적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사업체를 가진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업체, 비영리조직, 학교까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 없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10가지 기술이 소개된다.

1. 스스로를 하나의 개인 브랜드로 인식하고 유능한 전략적 사상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 내 안에 잠재된 전략적 통찰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3. 효과적인 전략과 목표를 구분 지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필수 개념을 작성한 한 장 분량의 전략 계획서를 준비하라.
4. 영리하고 강력한 전략을 고안하라.

5. 의사 결정 시,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와 함정을 인지하라.
6. 전략적인 사고와 실무적 사고를 구분하고 필요에 맞게 각각의 전략을 적용하는 법을 익혀라.
7. "전략가처럼 살기엔 난 너무 바빠."라는 흔한 변명을 버려라.
8. '동력, 통찰력, 기회, 발전' 이 네 가지 전략적 사고 요소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하라.
9. 문제를 직면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뛰어든 준비가 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다른 전략가들과 적극 소통하라.

저자는 이 책에서 위 10가지 원칙에 더불어 개별적인 전략적 사상가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비즈니스 및 직장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에서도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활용해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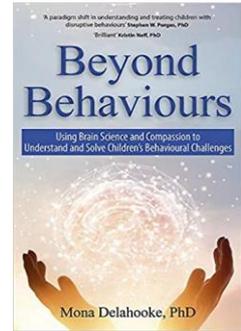
제1부: 전략적 사고의 범위와 본질, 목적

- 제1장: 당신은 전략적인 사람인가요?
 - 제2장: 영리함
 - 제3장: 빅 아이디어
 - 제4장: 전략적 사고의 12가지 세부적 기술들
 - 제5장: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왜 드문 것일까?
 - 제6장: 전략의 퍼지 전단부
 - 제7장: 미래를 위한 주머니
 - 제8장: 전략적 결정
 - 제9장: 통찰력의 스파크 1
- (총 2부 13장 부록 등으로 구성)

<저자 소개>

그렉 기텐스(Greg Githens)는 경영 코치, 리더십 코치이자 세미나 리더이며 기조 연설자이다. 저작으로는 『How to Think Strategically: Sharpen Your Mind』, 『Develop Your Competency』, 『Contribute to Success』가 있다.

제목 : BEYOND BEHAVIOURS
가제 : 우리 아이 왜 이럴까요?
저자 : Mona Delahooke
출판사: John Murray Learning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심리, 육아



*** 아이들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진심,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

운전 중 엄마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후,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 살짜리 아이. 보호 시설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행동 중재가 필요한 아동으로 지정하고 특별실로 보내버렸다. 반항성 장애 진단(Oppositional Defiant Disorder)을 받은 또 다른 열 살짜리 아이. 이 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아이가 늘 관심에 목말라 있으며 언제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이상 행동은 가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한 여자 아이는 밤마다 아빠한테 꼬집힘을 당하고 있다. 이 아이는 유치원 내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원생'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부모든, 교사이든 정체 모를 혼란에 빠져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반항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전통적인 방법은 아동과 성인 보호자 모두에게 아무런 성과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더 큰 고민에 빠져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제적인 명성에 더불어 30년에 달하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아과 심리학자인 델라후크 박사는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문제 행동들은 단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행동들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한 아이의 심리 상태에 내재된 더 깊고 개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이다. 따라서, 델라후크 박사는 이 책에서 최신 신경 과학 연구를 근거로 활용하여,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아직 평범하게 행동을 하기엔 충분한 발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 현상 너머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개인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신경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저자는 자폐증이나 다른 형태의 신경 다양성(Neurodiversity, 심신을 쇠약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인류의 다양한 신경학적 행동이나 능력) 진단을 받은 아동부터 유아시절 독성 스트레스나 외상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동 행동 스펙트럼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행동을 '통제'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아동과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면서 당사자들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워크 시트와 단계별 실질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임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따뜻한 안내서이다.

<목차>

서문

제 1 부

제 1 장.

행동에 숨겨져 있는 적용 가능한 이점 발견하기

현재 상황의 문제는 무엇일까?

발달의 빙산의 일각

신경 인식 : 가이드 원칙들

제 2 장

하향식 또는 상향식? 행동에 대응하기 전 먼저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하향식 또는 상향식?

기능적 정서 발달

사회 정서 발달 과정

자율 신경계의 경로

제 3 장.

개인의 차이

개인의 차이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신체와 행동 통제

감각처리: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저자 소개>

모나 델라후크 (Mona Delahooke) 박사는 30년 이상 아이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바 있는 임상 심리학자이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신경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Profectum Foundation의 선임 교수이다. 델라후크 박사는 부모, 조직, 학교 및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너이자 컨설턴트이며 전문 강사이기도 하다. 저작으로는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Intervention: A Skills Guide for Working with Children』이 있다.

제목 : BLOWOUT

가제 : 블로우 아웃: 미국, 러시아, 그리고 석유 산업

저자 : Rachel Maddow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405 페이지

장르 : 사회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 "이 책은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며 화석 연료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부패되었는지에 대한 매도우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느 다른 고발 책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자만의 냉소적인 위트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진 책이라는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

우리는 석유와 천연 가스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원 덕분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국가들과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진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스마트 폰을 충전해야만 하고 비행기를 타고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다. 게다가 25년전과 마찬가지로 세계 에너지의 공급원 중 약 80%가 화석 연료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당한 인기까지 누리고 있는, MSNBC의 앵커이자 이 책의 저자인 레이첼 매도우는 이 책을 통해 바로 미국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의 어두운 치부들과 적도 기니와 같은 해외 독재자들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2010년 오클라호마에서는 빈발성 지진 혹은 지진군을 뜻하는 단어인 "earthquake swarm"라는 새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었다. 같은 해, 한 경매장에서는 마이클 잭슨을 상징하는 크리스탈이 박힌 흰 장갑이 그의 다른 소장품과 함께 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어 한 남자의 손에 들어갔다.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의 주인이 된 사람은 바로 적도 기니의 상임부 장관이었다. 그 후 2014년 우크라이나의 혁명가들은 축출된 대통령의 궁전을 습격했고 그 곳에서 공작새들을 모아 둔 동물원과 화려하게 장식된 화장실 스페인의 갈레온을 모델로 만든 레스토랑 등을 발견했다. 이 모든 일들은 겉보기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있으며 레이첼 매도우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검은 돈의 발상지를 추적한다. 매도우 앵커는 특유의 블랙 유머를 가미하여 미국의 거대 석유, 천연가스 회사들의 무능함과 탐욕을 밝혀 내고 이 과정에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해킹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낸다. 더 나아가 그녀는 풍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푸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자국의 원유 사업 성장 속도를 저하시키면서까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에 자신들의 부패를 전파시켰는지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매도우는 셰브론, BP와 같은 세계 거대 석유 회사들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엑손 모바일과 렉스 틸러슨이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낱알이 파헤친다. 또한 그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켰으며, 바다와 강을 오염 시켰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도둑들과 살인자들을 양성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산업인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산업인 석유,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당장 중단하고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의심스러운 연대로 얽혀 있는 거대 산업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 비현실적인 풍경속에서

제1장: 경이로움과 향수

제2장: 요술램프 지니

제3장: 도둑맞은 물건들

제4장: 찰리 허슬

제5장: Thunder up! (오클라호마 농구팀의 구호)

제6장: 위기 관리의 문제

제7장: 대표 인사

제8장: 실질적인 현실

제9장: 누가 그랬을까?

<저자 소개>

레이첼 매도우 (Rachel Maddow)는 미국 방송 MSNBC의 대표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자유주의 정치 논평가이다. 저작으로는 『Drift: The Unmooring of American Military Power』, 『Bag Man: The Wild Crimes, Audacious Cover-Up, and Spectacular Downfall of a Brazen Crook in the White House』 (2020)가 있다.